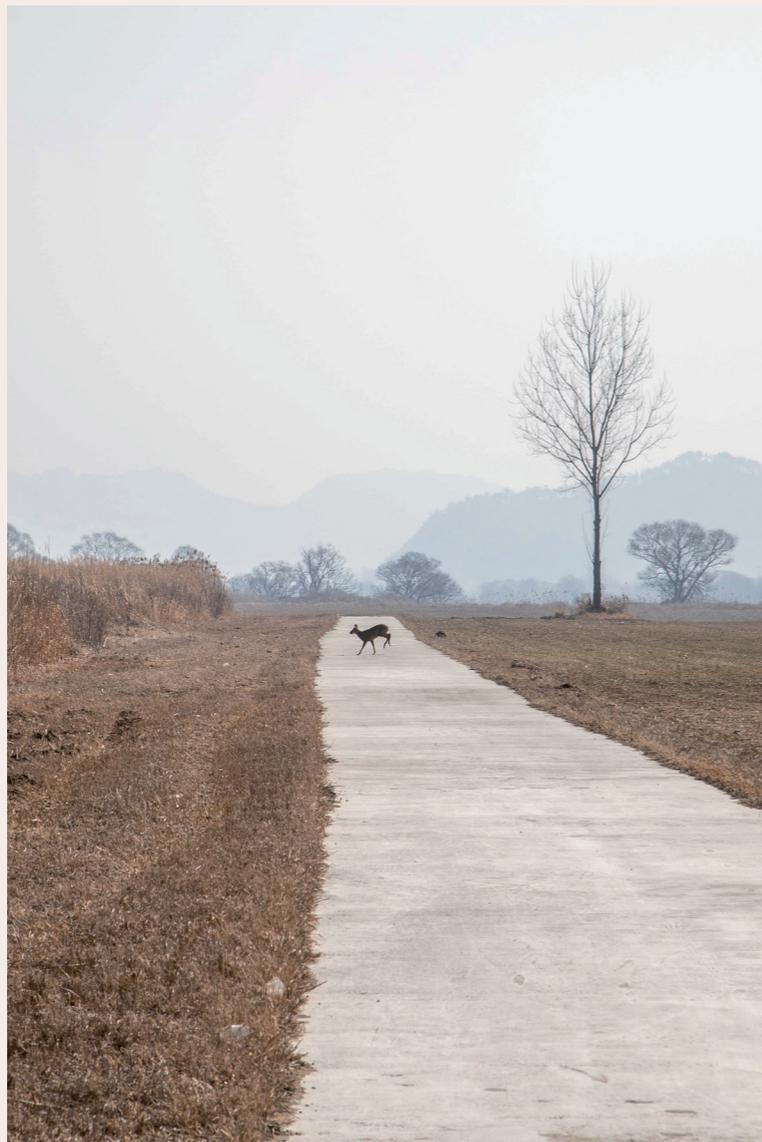


##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섬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금강 자전거길

**이호준 Lee, Ho-Joon**  
언론학박사/사진가/미디어교육사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네 차례의 개인전과 여섯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북악산 전망

인생과 사진에서 '타이밍(timing)'은 매우 중요하다. 사진과 인생 모두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타이밍에 선택과 결정을 하면 성공적인 인생과 최고의 사진이 따라온다. 그런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어긋나기 십상이고 주춤거리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개 타이밍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절반 정도만 맞는 말이다. 타이밍도 준비와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사진에 관한 언급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으로 "결정적 순간"을 꼽을 수 있다. 20세기 세계 사진계에서 명성을 떨치며 시대를 풍미했던 프랑스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찍은 '물웅덩이를 건너뛰는 순간'을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이 사진은 예기치 못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사진가가 울타리 판자 틈새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장면이다.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반드시 기대했던 순간과 결과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분명 좋은 선택과 결정적 순간을 맞출 수 있다. 인생도 사진도 마찬가지다.